

영조(英祖) 궁궐 인식의 특징

안 장 리*

I. 서론	V. 평범한 궁궐 명칭의 일상성
II. 영조시대 이전 궁궐에 대한 인식 양상	VI. 결론
III. 영조의 궁궐 생활과 영조어제(御製)	<참고문헌>
IV. 영조의 궁궐 인식	<국문요약>

I. 서론

궁궐은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머무는 장소이며, 국가의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 중심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정전(正殿)을 비롯한 중요 건물 외에 각 건물의 흥폐를 알기는 쉽지 않다. 조선시대 궁궐관련 기록으로 대표적 자료인 『궁궐지(宮闕志)』(규3950)에 보면 「경복궁지(景福宮志)」에 52동, 「창덕궁지(昌德宮志)」에 141동, 「창경궁지(昌慶宮志)」에 71동, 「경희궁지(慶熙宮志)」에 107동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그 흥폐가 밝혀진 건물은 많지 않다.¹⁾

52동의 이름만 있는 경복궁만 해도 태조대 창건될 때는 775 간이었으며 270년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한문학 전공(angel@aks.ac.kr).

1) 『궁궐지(宮闕志)』(규3950 → 규장각 소장 청구기호, 이후 별도의 언급이 없는 『궁궐지』는 모두 이 판본을 일컫는다). 『문원보불(文苑繡補)』에는 일부 궁궐 건물의 상량문이 수록되어 있다. 정조조 출판된 원편(K4-100 → 장서각 소장 청구기호)에는 능 정자각 외에 31편이 실려 있으며 철종조에 출판된 속편(K4-101)에는 능 정자각과 화성행궁의 건물을 외에 13편이 실려 있다. 궁궐의 건물 숫자에 비해 적은 편이며, 유명 건물에 한정되어 있는 편이다.

이 지난 고종대 증건되었을 때는 7,000여간이 이르렀다고 한다²⁾ 이렇게 증건된 경복궁은 두 차례에 걸친 화재와 일제의 훼손으로 내부의 전각이 거의 없어진 빈 궁궐이 되었다.³⁾ 이렇게 왜곡되고 사라진 궁궐을 복원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7,000여간에 이르는 궁궐 건물들의 시기별 명칭과 용도를 밝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아울러 이 궁궐과 관계했던 인물들의 궁궐인식을 밝히는 일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궁궐이란 결국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생활공간이며, 그들의 삶과 애환이 담겨있기에 더욱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궁은 공식적인 제일 왕궁인 법궁(法宮), 화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쳐하는 이궁(離宮), 왕의 잠저(潛邸)나 사신 접대용으로 만든 별궁(別宮), 행차할 때 하루 이틀 묵어가는 행궁(行宮) 등으로 나누며⁴⁾ 이 중에 정식 궁궐이라 할 수 있는 법궁과 이궁에는 관청이 배치되는 궐외각사(闕外各司)와 임금이 정치를 하는 외전(外殿), 왕실 인물이 생활하는 내전(內殿)과 왕실 생활을 지원하는 궐내각사(闕內各司) 그리고 궁성문(宮城門) 등이 있기 마련이었다⁵⁾

이런 궁궐의 생활 주체는 궐외각사에서 근무했던 사대부와 궐내각사에서 생활했던 궁인들 그리고 왕실 인물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궁궐인식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들의 저작을 살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저작 중에서도 사대부의 경우는 주로 궐외각사에 머물렀을 뿐이므로 궁인들과 왕실 인물의 기록이 중요한데 궁궐을 평

2) 『태조실록』 태조4년 9월 29일 기록에 따르면 창건 초기 경복궁 전각의 규모는 내전 173간, 외전 212간, 궐내 각사 390여간으로 총 775간 정도였다. 그런데 『궁궐지』(규11521-1)의 증건 경복궁 규모를 보면, 궁성한 건물이 5,792.5간이나 되며 당시 없어진 건물 1,432.5간을 합하면 7,225간이다. 전체적인 공간은 비슷하나 궐내에 전각이 많이 늘어났으며 특히 후원에 전에 없던 건물을 많이 지어서 이런 차이가 야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순민, 「조선왕조 궁궐 경영과 양궐체제의 변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1996), 2장 4절·경복궁의 공간구조와 4장 4절·증건 경복궁의 공간구조에서 언급하였다.

3) 고종10년(1873년) 12월 10일의 화재와 고종13년 11월 4일의 화재로 자경전(慈慶殿) 및 교태전(交泰殿)이 소실되었으며 1915년 일제의 始政 오년기념 조선물산 공진회 개최와 조선총독부 건설로 경복궁의 대부분의 전각을 철거시켰다. 홍순민, 위의 논문 195~197쪽

4) 홍순민, 위의 논문, 1~2쪽

5) 홍순민, 위의 논문, 76~79쪽 이 논문의 <표 2> 창건 초기 경복궁의 전각 구성을 풀이하면 경복궁의 외전은 정전(正殿) 등이며, 내전은 연침(燕寢) 등이고, 궐외각사는 의정부 등이 해당되며, 궐내각사는 주방 등이 있다. 그리고 궁성문으로는 동문인 건춘문(建春門) 등이 해당된다

생의 생활공간으로 삼은 왕의 ‘어제(御製)’야말로 궁궐관련 기록의 보고라 할만하다. 본고에서는 조선 시대에 가장 오랫동안 재위했으며, 또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영조어제 중에서 만년 저작인 첩자류(帖子類)를 중심으로 그 궁궐 인식을 살피고자 한다.⁶⁾ 필자가 영조어제 첩자류에 주목하는 이유는 조선시대 궁궐은 유가주의(儒家主義) 국가시대 상징적인 건물이므로 궁궐 관련 논의를 할 때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언급에 그칠 가능성이 높는데 이 첩자류는 만년 영조의 진솔한 감정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궁궐에 대한 개인적인 궁궐 인식을 살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⁷⁾

본고는 먼저 『조선왕조실록』, 『궁궐지』, 『국조보감(國朝寶鑑)』, 『열성어제(列聖御製)』, 『문원보불』 등 궁궐 관련 자료를 통해 영조시대 이전의 궁궐인식을 개괄하고 이어서 영조어제 첩자류에 나타난 영조의 궁궐인식을 살피도록 하겠다.

II. 영조시대 이전 궁궐에 대한 인식 양상

조선시대 궁궐에 대한 논의는 조선 건국의 주역이었던 사대부 정도전(鄭道傳)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도전은 기문인 「경복궁(景福宮)」에서 궁궐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신이 상고하건데 궁궐이란 임금이 정사를 보는 곳으로 온 나라가 우러러 보고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나아가는 곳이므로 그 제도를 웅장하게 하여 존엄을 보이고 명칭을 아름답게 하여 보고 싶고 감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나라 당나라 때부터 궁궐의 이름들을 혹 전에 있던 이름을 가져다 쓰기도 하고 혹은 고쳐 부르기도 하였으나 존엄을 보이고, 보고 감동을 느끼게 하도록 하는 의

6) 영조는 생전에 자신의 문집을 편찬했는데, 편찬 이후에 지은 글들은 정조가 첩자로 만들어 봉모당(奉謨堂)에 봉안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7) 이 영조 어제 첩자류는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이전의 왕의 문학은 물론 사대부의 문학과도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그만큼 당대 문예관습에 매이지 않은 자유분방한 태도로 여겨지며 그러기에 진솔한 감정이 담겨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자료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3장에서 일부 다루었으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후고에서 다루겠다.

의는 같습니다.⁸⁾

이 글에는 궁궐이 갖춰야할 목적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궁궐을 짓는 목적은 한마디로 신하와 백성들이 존엄을 느끼고 또 감동하게 하는 것이요, 그 방법은 체도를 웅장하게 하고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정도전이 인식한 궁궐의 핵심 요소는 규모와 이름인 셈이다. 본 장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한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궁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1. 규모

조선시대 여러 궁 중에 비교적 초기에 그 규모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궁은 경복궁과 창덕궁인데 『태종실록』에서는 그 중 창덕궁의 규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궁이 완성되었다. 정침청(正寢廳)이 3간, 동서 침전(東西寢殿)이 각각 2간, 동서 천랑(東西穿廊)이 각각 2간, 남천랑(南穿廊)이 6간, 동서 소횡랑(東西小橫廊)이 각각 5간인데, 동서 행랑(東西行廊)에 접하였고, 북행랑(北行廊)이 11간, 연배 서별실(連排西別室)이 3간, 동서 행랑(東西行廊)이 각각 15간, 동루(東樓)가 3간, 상고(廡廡)가 3간이고, 그 나머지 양전(兩殿)의 수라간(水刺間)·사옹방(司饗房) 및 탕자 세수간(湯子洗手間) 등 잡간각(雜間閣)이 총 1백 18간인데, 이상은 내전(內殿)이다. 편전(便殿)이 3간, 보평청(報平廳)이 3간, 정전(正殿)이 3간이고, 월대(越臺)는 동서가 광(廣)이 63척 9촌, 남북은 광(廣)이 33척, 상층(上層)은 계고(階高)가 3척 5촌, 중층(中層)은 광(廣)이 5척, 계고(階高)가 4척 1촌이며, 전정(殿庭)은 남북이 광(廣)이 1백 17척 남짓하고, 동서가 광(廣)이 1백 56척 남짓하며, 동변(東邊)은 상층(上層)이 3간, 중층(中層)이 5간, 행랑이 9간이고, 서변(西邊)은 상층(上層)이 3간, 중층(中層)이 4간, 행랑이 9간이며, 대문이 3간, 좌우 행랑이 각각 9간, 승정원청(承政院廳)

8) “臣按宮闕 人君所以聽政之地 四方之所瞻視 臣民之所咸造 故壯其制度 示之尊嚴 美其名稱 使之觀感 漢唐以來 宮殿之號 或沿或革 然其所以示尊嚴而興觀感則其義一也” 정도전, 「경복궁」, 『삼봉집』 권4, 『표점영인 한국문집총간』5(민족문화추진회, 1991), 349 쪽

이 3간, 동행랑(東行廊)이 10간, 남행랑(南行廊)이 4간, 북행랑(北行廊)이 4간, 외행랑(外行廊)이 5간, 외루(外樓)가 3간이다.⁹⁾

위의 인용문을 정리하면, 내전 주요 전각과 부속건물이 77간, 나머지 실무 건물이 118간으로 내전 전체는 195간이며, 내전 외에 기타 전각과 행랑은 92간으로 총 287간이다. 거의 300여간이나 되어 매우 웅장한 것 같지만 이 목록에는 궐내각사와 궐외각사 대부분이 생략되어 있어 체 규모를 드러냈다고는 할 수 없다. 대개 이들이 갖추어진 경복궁의 경우 창건 당시에 이미 775간이었으며, 고종 중건 때는 궁성 안 전각만 해도 7,000간이 넘었다는 언급은 이미 한 바 있다.

고종 때 중건된 경복궁은 그 규모만큼 폐해도 심했지만 왕실 인물 특히 왕들에게 궁궐의 규모는 클수록 좋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조선초기부터 궁궐 건물에 대한 언급에는 늘 검소에 대한 당부를 담고 있다. 궁궐의 검소한 규모는 덕치를 강조하고 백성을 중시하는 유가통치의 기본적인 덕목이기 때문이다.

이 때에 근정전을 중수하였다. 참찬 허조(許稠)가 아뢰기를 “태종께서 검소하게 전각을 단청하였으니 전하께서도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도록 하소서”하니 왕이 옳다고 여겼다.¹⁰⁾

이 글은 세종이 근정전을 수리할 때 참찬 허조가 간언한 내용으로 선왕의 뜻을 이어 화려하지 않게 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으며, 세종도 이에 수긍하였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주역』 대장괘(大壯卦)에서 건축 제도를 고찰할 수 있고 『시경』의 「사간(斯干)」편에서 궁실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당의 위치가 침전에 연결된 것

9) 『태종실록』 권10, 태종5년 10월 19일 辛巳. “離宮告成 正寢廳三間, 東西寢殿各二間, 東西穿廊各二間, 南穿廊六間, 東西小橫廊各五間, 接于東西行廊, 北行廊十一間, 連排西別室三間, 東西行廊各十五間, 東樓三間, 廂庫三間, 其餘兩殿水刺間, 司饗房及湯子洗手間等, 雜間閣摠一百十八間, 以上內殿便殿三間, 報平廳三間, 正殿三間, 越臺東西廣六十三尺九寸, 南北廣三十三尺, 上層階高三尺五寸, 中層廣五尺, 階高四尺一寸, 殿庭南北廣一百十七尺有奇, 東西廣一百五十六尺有奇, 東邊上層三間, 中層五間, 行廊九間, 西邊上層三間, 中層四間, 行廊九間, 大門三間, 左右行廊各九間, 承政院廳三間, 東行廊十間, 南行廊四間, 北行廊四間, 外行廊五間, 外樓三間.”

10) “時修勤政殿 參贊許稠啓曰 初構之時 凡殿宇丹雘 太祖務從儉約 願殿下勿令侈美 上有好者(『국조보감』 제6권 세종조2, 6b. 세종8년, 민족문화추진회, 1995).

은 휴식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며, 정전에 연결된 것은 방문과 영접의 편의를 위함이다. 주상전하는 효성이 지극하고 궁실을 검소히 하여 선왕에 부끄럼이 없을 뿐 아니라, 사치한 궁실이 지니는 폐단을 항상 경계하여 대지 臺池의 향락을 일삼지 않고 국기의 영원한 안정을 도모해 왔다. 지난 번 화재는 이전에 없었던 큰 변고로서 중건이 불가피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임금에게 간청하였으나 6개월 동안 지연된 것은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옛터 위에 옛날 궁궐을 헐어 건축하니 모든 설계와 구조가 적절 들어맞았다. 저축된 돈을 흠어 노임을 지급하니 원망하는 이가 없고, 유휴인력을 동원하니 농사에 지장이 없다...11)

이 글은 효종대에 대제학인 채유후(蔡裕後)가 창덕궁의 희정당(熙政堂)에 대해 지은 상량문으로 희정당은 왕이 업무를 보던 편전이다. 채유후는 이 글에서 건물의 중건에 대해 네 가지 요소를 강조하였다. 첫째는 불요불급성이다 즉 이 건물은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건된 것이며, 휴식이 아니라 공무를 위해 지었다고 하였다. 둘째는 규모의 검소함이다 선왕이 늘 사치한 궁실의 폐단에 대해 경계하였다고 하여 이는 왕실의 정책이었음을 알려준다. 셋째는 적절한 시기이다. 꼭 필요하지만 백성들이 어려울 때는 미루었다가 형편이 나아진 시기에 중건을 하였다고 하였다. 넷째는 적절한 보상이다 즉 부역에 동원된 일손들이 여유가 있을 때 부르고 또 적절한 보상을 하였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언급은 어디까지나 위정자에 입장에서 기술된 것으로 전적으로 이렇게 실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선조 위정자는 모두 위와 같은 입장이 궁궐 건축에 임하는 바른 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개 듣건대 성인이 하늘의 뜻에 따라 집을 지어 바람과 비를 맞이하고 임금이 나라를 세우고 궁궐을 지어 세월을 보냄에 무너를 없애고 화려함을 없애

11) “伏以易著大壯 棟宇之制可憑 詩詠斯干 筦簟之所宜置 況復地連內寢 非耽宴息之便 堂接中宸 本取延訪之近 如存苟完之念 焉有時屈之嫌 恭惟主上殿下孝盡克家 業恢肯構 卑室昭儉 既無愧於前模 瓊宮務奢 恒切戒於往轍 不事臺池之樂 永圖基兆之寧 顧變亂古所未聞 則經營今不獲已 諸臣籲請 顯爲聖躬 六月遲延 實緣飢歲 遵遺址而修掃 撤舊材而造成 規矩準繩 平直方圓 不可勝用 樽楹侏儒 根闥居楔 各適其宜 散積泉而償勞 人亦無怨 驅遊手而趨事 農不失時(채유후, 『희정당상량문』, 『湖洲集』 권5, 『표점영인 한국문집총간』 101, 민족문화추진회 1993, 351 쪽.

검소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바른 자리에 임하는 뜻을 숭상한 것이고 또한 높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바이다…이에 호조에서 고공의 기록을 살피니 천문을 살피는 관리는 집 짓는 별의 운행을 짐쳐서 훌륭한 재목들을 이르게 하고 들보와 서까래 청동을 모으는 데는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한양의 풍경을 옮기지도 않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없었다(하략. 12)

이 글은 홍석주(洪奭周)가 순조대에 회상전을 중건할 때 지은 상량문으로 역시 검소한 규모, 적절한 시기, 백성에 대한 배려 등이 궁궐 규모와 건축에 있어서 언제나 주요한 고려사항이었음을 알려준다.

이상에서 살핀바와 같이 세종대에서 순조대까지 위정자들은 늘 백성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 궁궐 규모가 지나치지 않도록 배려했음을 엿볼 수 있다.¹³⁾ 이처럼 위정자들은 늘 궁궐이 웅장하되 지나치지 않고 검소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이를 위해 궁궐 규모를 넓힐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였고,¹⁴⁾ 궁궐 이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크기와 채색 등을 규제하여 상대적으로 궁궐이 가장 웅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⁵⁾

2. 명칭

사람의 이름에 그 인물의 특성과 그 인물에 대한 작명자의 바람이 담겨있듯이

-
- 12) “蓋聞聖人繼天 設棟宇以待風雨 王者建國 爲宮室以徑陰陽 斷雕去華 固儉約之 是尙正位居體 亦崇高之攸宜…於是司徒按考工之記 太史占營室之星 荊梓豫楠 各效榘桷之用 青銅亦仄 不煩庸調之輸 洛邑之圭景不移 無盈無縮”(홍석주, 「회상전상량문」, 『연천집』 권1, 『한국문집총간293』, 민족문화추진회, 2002. 257bcd).
- 13) 이와 같은 면모는 지방 관청의 공해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동국여지승람』의 누정 건축기를 보면 대부분 재물을 미리 마련하여 백성들이 일이 없는 농한기에 건물을 지어 백성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 14) 『세조실록』 세조8년 1월 30일(을축) 조를 보면 창덕궁 후원을 확장하고자 인가73 채를 철거하고 이들에게 빈땅을 주었다고 했으며, 또 간경도감 주위의 인가 23채를 철거하고 궁성 부근의 예와 같이 보상하였다고 하였다.
- 15) 『세종실록』 세종11년 1월 24일(신미) 조를 보면 궁궐 이외의 공사 건물에 붉은 칠을 쓰지 말라고 공조에 전교하였다고 하였으며, 세종13년 1월 12일(정축) 조를 보면 신료들의 가옥이 지나친 것에 대한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궁궐 건물명에도 그 건물의 특성과 건물에 대한 바램이 담겨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각 건물들은 조선의 역사만큼 오랫동안 흥폐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므로 『궁궐지』 각 궁지의 건물명은 멀리는 정도전이 명명한 이름부터 가깝게는 순조가 명명한 이름까지 같이 놓고 논의하기에는 시대적 차이가 너무 크다. 본장에서는 시대를 알 수 있는 건물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경복궁을 창건한 정도전, 창덕궁의 이름을 대대적으로 개명한 세조, 그리고 십 몇 년간 궁궐 건물을 짓고 또 개명한 숙종 등을 중심으로 명칭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도전의 궁궐명 명칭은 태조의 명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태조실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판삼사사(判三司事) 정도전에게 분부하여 새 궁궐의 여러 전각의 이름을 짓게 하니, 정도전이 이름을 짓고 아울러 이름 지은 의의를 써서 올렸다 새 궁궐을 경복궁이라 하고, 연침(燕寢)을 강녕전(康寧殿)이라 하고, 동쪽에 있는 소침(小寢)을 연생전(延生殿)이라 하고, 서쪽에 있는 소침(小寢)을 경성전(慶成殿)이라 하고, 연침(燕寢)의 남쪽을 사정전(思政殿)이라 하고, 또 그 남쪽을 근정전(勤政殿)이라 하고, 동루(東樓)를 융문루(隆文樓)라 하고, 서루(西樓)를 응무루(隆武樓)라 하고, 전문(殿門)을 근정문(勤政門)이라 하며, 남쪽에 있는 문을 정문(正門)이라 하였다.¹⁶⁾

이들 건물명 명명 방법을 보면, ‘경복궁(景福宮)’ 과 ‘강녕전(康寧殿)’ 처럼 『시경』, 『홍범』 등 전고에 있는 좋은 뜻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¹⁷⁾ ‘근정전(勤政殿)’ 과 ‘사정전(思政殿)’ 처럼 건물의 기능과 좋은 말을 조합하여 짓는 경우,¹⁸⁾ ‘융문루(隆文樓)’와 ‘응무루(隆武樓)’ 처럼 좋은 뜻의 어휘를 새로 지어 붙이는 경우, 그리고 ‘정문(正門)’ 처럼 단순히 건물의 기능을 나타내는 경우 등이 있다

세조가 예조에 명하여 창덕궁의 건물을 명명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을 『세조실록』

16) 『태조실록』 권8, 태조4년 10월 7일 丁酉 “命判三司事 鄭道傳 名新宮諸殿 道傳 撰名 并書所撰之義以進. 新宮曰 景福 燕寢曰 康寧殿 東小寢曰 延生殿 西小寢曰 慶成殿 燕寢之南曰 思政殿 又其南曰 勤政殿 東樓曰 隆文 西樓曰 隆武 殿門曰 勤政 午門曰 正門”

17) “誦周雅既醉以酒 既飽以德 君子萬年 介爾景福 請名新宮曰景福”(정도전, 「경복궁」, 앞의 글, 349쪽).

18) 근정전의 경우 정사를 보는 곳이라는 의미의 ‘政’에 정사를 보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의 ‘勤’을 결합시킨 경우이다

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다.

창덕궁의 조계청(朝啓廳)을 선정청(宣政廳)이라 일컫고, 후동별실(後東別室)을 소덕당(昭德堂)이라 일컫고, 후서별실(後西別室)을 보경당(寶慶堂)이라 일컫고, 정전(正殿)을 양의전(兩儀殿)이라 일컫고, 동침실(東寢室)을 여일전(麗日殿)이라 일컫고, 서침실(西寢室)을 정월전(淨月殿)이라 일컫고, 누(樓)를 징광루(澄光樓)라고 일컫고, 동별실(東別室)을 응복정(凝福亭)이라 일컫고, 서별실(西別室)을 옥화당(玉華堂)이라 일컫고, 누하(樓下)는 광세전(光世殿)·광연전(廣延殿)이라 일컫고, 별실을 구현전(求賢殿)이라 일컫도록 하라.”¹⁹⁾

이 경우는 대개 별도의 이름이 없이 기능으로만 구분되었던 건물들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붙인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신하가 조회에서 아뢴다는 뜻의 ‘조계청(朝啓廳)’을 왕이 정치를 베푼다는 뜻의 ‘선정청(宣政廳)’으로 바꾸어 바로 신하가 주체가 아니라 왕이 주체임을 분명히 하는 용어로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덕을 밝힌다는 ‘소덕당(昭德堂),’ 음양을 아우르는 ‘양의전(兩儀殿),’ 빛을 맑게 하는 ‘징광루(澄光樓),’ 세상을 밝히는 ‘광세전(光世殿)’ 그리고 동서침실에 해와 달을 명칭에 넣은 것(麗日殿·淨月殿)들도 왕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즉 세조는 궁궐명명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셈이다.

정도전과 세조의 명명차이는 ‘근정전’과 ‘선정청’이라는 명명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정도전이 정치를 하는 주체가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일꾼으로서의 덕목을 강조했다면 세조는 정치는 잘 베풀면 된다는 주인으로서의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

숙종의 명명을 살피기 전에 원래는 인조의 명명을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본래 광해군대에 경희궁과 인경궁(仁慶宮)이 창건되고 인조대에 완성되었으므로 경희궁의 경우 인조 때에 대개 작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과문으로 이를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는 못하였다. 원래는 광해군이 후에도 계속 건물을 새로 짓는다던가, 건물의 용도나 의미가 바뀔 경우에는 작명과 개명이 수시로 이루어졌는데 인조, 효종, 숙종, 영조, 정조, 순조 등 여러 왕

19) 『세조실록』 권26, 세조7년 12월 19일 乙酉 “傳于禮曹曰 昌德宮 朝啓廳 稱 宣政殿 後東別室 稱 昭德堂 後西別室 稱 寶慶堂 正殿 稱 兩儀殿 東寢室 稱 麗日殿 西寢室 稱 淨月殿 樓 稱 澄光樓 東別室 稱 凝福亭 西別室 稱 玉華堂 樓下 稱 光世殿·廣延殿 別室 稱 求賢殿”

이 명명에 동참하였다. 그런데 이 중 숙종의 경우 비교적 많은 작명 및 개명 기록을 찾을 수 있어 거론할 만한데 이를 연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위시기	원명	창건시기	개칭	비고
숙종14년(1688)	淺愁亭	미상	淸心亭	숙종 「淸心亭記」
숙종16년(1690)	醉香亭	인조23년(1645)	喜雨亭	숙종 「喜雨亭名并序」
숙종18년(1692)	愛蓮亭			숙종 「御製記」
	觀聚堂	미상	隆武堂	「隆武堂記」
숙종19년(1693)	日新軒			修改廳
숙종20년(1694)	綵線堂	미상	緝熙堂	숙종 「緝熙堂」시
숙종21년(1695)	春輝殿	효종7년(1656)	濬源殿	어진 봉안
숙종25년(1699)	藥淵堂	미상	集慶堂	崔錫鼎 「集慶堂記」 『國朝寶鑑』
숙종26년(1700)	靈慶堂	미상	爲善堂	숙종 「舊名靈慶模刻宣廟御筆改號曰爲善」시
숙종30년(1704)	春和亭			
미상	聚勝亭	인조25년(1647)	樂民亭	숙종 「御製記」
미상	經綸齋			숙종 「經綸齋」詩
미상	親賢閣			세자 강연 장소

숙종의 경우 명명 양상을 보면 첫째, 기능에 맞게 명확히 이름 지은 경우로 ‘용무당(隆武堂)’과 ‘선원전(濬源殿)’을 보면 군사를 사열하고 어진을 봉안한다는 건물의 용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한편으로 ‘친현각(親賢閣)’의 경우도 어진 사람을 모셔서 훌륭한 세자가 되라는 왕의 바람이 드러나 있다. 둘째, 제왕으로서 백성에 대한 태도가 나타난 경우로 이전 이름인 ‘취향정(醉香亭)’과 ‘취승정(聚勝亭)’이 경치를 감상하며 유희하는 면모를 보여줬다면 이를 개명한 ‘희우정(喜雨亭)’과 ‘낙민정(樂民亭)’은 백성과 함께 풍년을 기원하고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한다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륜재(經綸齋)’도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역량에 대한 바람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 부류에 속한다. 기타 ‘청심정(淸心亭),’ ‘애련정(愛蓮亭),’ ‘일신헌(日新軒),’ ‘위선당(爲善堂),’ ‘춘화정(春和亭)’ 등은 유가의 덕목과 관련된 명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 개인적 감정이 개입된 경우는 ‘집경당(集慶堂)’ 정도이다. 숙종은 『숙종실록』에서 이 당의 명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옛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으면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물건에다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는 기록하여 잊지 않으려는 뜻이었으니, 더욱이 큰 것이야 말할 것이 뭐 있겠는가? 금년 봄 세자의 환후(患候)가 건강을 회복한 것은 실로 막대한 경사이니, 기쁨을 기록하는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거처하던 예연지당(藥淵之堂)이라는 이름을 고쳐 새로 화액(華額)을 걸었으니, 의당 사신(詞臣)에게 명하여 그 일을 기록하게 해야 한다 생각건대 신축년(1661년) 단강(誕降)하던 처음에도 이 당(堂)에 머물렀었고, 신유년(1681년) 주량 회갑(舟梁回甲) 때에도 이 당에 머물렀었다 그래서 호칭을 고칠 적에 중곤(中壺)이 이런 경사(慶事)를 모두 합쳐 명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누누이 진청(陳請)하였으므로, 내가 면종(勉從)하여 당명(堂名)을 집경당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모든 경사가 일당(一堂)에 모인 것을 뜻한 것이다. 이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의 일이 그 가운데 관계되어 있음을 혐의하여 지금까지 잠자코 있었으나, 다시 생각건대 자신의 일임을 혐의하여 기쁜 일까지 아울러 전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좌상(左相)에게 「집경당기」를 지어 올리게 하라”하였다. 이 당(堂)은 경덕궁에 있는데 왕세자가 이 당에 거처하면서 새로 건강을 회복한 경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命)이 있었던 것이다. 최석정(崔錫鼎)이 명에 응하여 지어 올리니, 녹비(鹿皮)를 하사하라고 명하였다.²⁰⁾

이 집경당 이름은 ‘경사가 모였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이전에 존재하던 ‘회상전(會祥殿),’ ‘집상전(集祥殿),’ ‘융경헌(隆慶軒)’ 등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위의 인용에서 보듯 경사의 내용이 ‘숙종 자신이 태어나고, 혼인하고 또 세자가 병이 나은 곳’이라고 하는 태도는 이전에 없던 명명 태도이다. 이 명명에는 왕 개인의 사적 경사(慶事)를 국가의 공적 경사로 확대하고 이를 고착화하려는 자세가 담겨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궁궐명의 부여는 처음에는 사대부가 명명하였으나

20) 『숙종실록』 숙종25년 5월 10일 己卯 “上下教曰 ‘古人有喜 雖少輒以名物 蓋以志不忘也 況其大者耶? 今春世子患候康復 實莫大之慶 則其可無志喜乎? 遂改其所居藥淵之堂名 新揭華額 所宜即命詞臣記其事 而第念歲在辛丑誕降之初 乃次于此堂 辛酉舟梁之年 又次于此堂 故當其改號之時 中壺以合此慶命名之意 縷縷陳請 予乃勉從 易其堂名曰 集慶 即諸慶萃于一堂之謂也 以故予嫌其自己之事 亦涉其中 尚今泯默矣 更爲思惟 嫌於自己 並與其忻悅之事而無傳 可乎? 其令左相 集慶堂 記製進’ 蓋堂在 慶德宮 王世子處于斯堂 新有平復之慶 故有是命 崔錫鼎 應命製進 命賜鹿皮”

이후에는 주로 왕이 명명하게 되었고 세조대에는 왕권 과시가 중요했으며, 인조대와 숙종대의 명칭 변경을 보면 전 시대에는 유흥적인 면모가 엿보였던 반면에 뒷 시대에는 유교적 덕목 구현, 제왕으로서의 위민정신 등이 강화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으로 숙종은 개인적 경사를 국가적 경사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런 면모는 전에 없던 명명방식으로 여겨진다.

III. 영조의 궁궐 생활과 영조어제(御製)

영조는 왕비의 소생도 아니요 또 장남도 아니기에 즉위 과정이 순탄치 않았으며, 즉위 후에도 무신난을 겪는 등 정국의 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재위는 정국 운영의 자신감을 주게 되었던 듯한데 이는 만년의 집경당 생활, 어제(御製)의 다작, 독특한 문체 창조 등으로 표출된다.

1. 집경당 생활

영조는 숙종 20년(1694) 숙빈 최씨를 생모로 창덕궁 보경당에서 출생하였으며, 1712년 19세에 왕실의 규정에 따라 궁궐 밖 창의궁으로 옮긴다. 궐 밖에서 생활 하긴 하지만 종친부의 중요 관직을 맡았으며, 1721년 28세에 왕세제로 봉해짐으로써 다시 보경당에 거처하게 된다. 1724년 31세에 즉위한 후 회상전에 거처하게 되면서 왕으로서의 궁궐생활을 누리던 영조는 1759년 66세 이후에는 주로 집경당에서 거처하였으며, 83세에 이곳에서 승하하였다.

왕으로서 창업 군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저시기가 있던 점과 만년에 정침이 아닌 집경당에서 주로 생활한 점이 특징적인데 특히 정침을 놔두고 집경당에서 거의 30년간을 생활한 점은 특이한 일로 여겨진다. 『승정원일기』에는 영조가 집경당 생활을 시작한 날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병술년 4월 27일 진시, 상이 집경당에 나아갔다. 약방에서 입진할 때 도제조 김치인, 제조 김양택, 부제조 정존겸, 기사관 최광벽·권덕훈·차봉원, 의관

방태여·이이해·허수·이태원·오도형·김효검·정윤설·유광익 등이 차례로 나아갔다 마쳤다. 치인이 아뢰기를 “야간에 성체가 어떠하였습니까?” 상이 말하기를 “한결 같았노라.” 치인이 아뢰기를 “자리를 옮기실 때 손상된 곳은 없으십니까?” 상이 말하기를 “별로 손상된 곳이 없다.” 치인이 아뢰기를 “침수와 수라는 또한 어떠십니까?” 상이 말하기를 “또한 한결 같도다.” 치인이 아뢰기를 “이 전이 밝고 상쾌하여 회상전보다 자못 나은 듯합니다.” 상이 말하기를 “이날 더울 때 저 장지를 치우니 조금 상쾌해진 듯하였다” 상이 앉았는데 치인이 아뢰기를 “오늘 기거하시는 바가 더욱 성체가 가볍고 편해진 것을 증험하는 듯 합니다.” 상이 말하기를 “조금 그런 듯하구나.”²¹⁾

내용에서 보다시피 영조는 환후로 본래 침전인 회상전에서의 집경당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이날 『승정원일기』에서 영조는 가을 이후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자²²⁾ 이후 집경당에서의 생활이 고착된다. 영조의 집경당 생활은 66세라는 노령으로 인한 건강에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집경당은 회상전에 비해 좁기 때문에 신하들에게는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²³⁾ 그러나 영조는 집경당이 세자가 병이 나아 붙여진 이름임을 중시하여 떠나지 않으려 했으며,²⁴⁾ 결국 왕은 정침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일반 인식을 깨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승하할 때까지 집경당 생활을 지속하였다.

21) 『승정원일기』 丙戌四月二十七日辰時. “上御集慶堂. 藥房入診時 都提調金致仁, 提調金陽澤, 副提調鄭存謙, 記事官崔光璧·權德訓·車鳳輿, 醫官方泰興·李以楷·許礎·李泰遠·吳道炯·金孝儉·鄭允說·柳光翼, 以次進伏訖. 致仁曰, 夜間, 聖體若何? 上曰, 一樣矣. 致仁曰, 移御之餘, 不暇有損乎? 上曰, 別無所損矣. 致仁曰, 寢睡·水刺之節, 亦何如? 上曰, 亦一樣矣. 致仁曰, 此殿明朗爽豁, 比會祥殿頗勝矣. 上曰, 當日熱時, 舉彼障子, 則似必稍爽矣. 上坐御. 致仁曰, 今日起居, 益驗聖體之輕便矣. 上曰, 稍似然矣”

22) 『승정원일기』 丙戌四月二十七日未時. “上曰, 活體比近來爲第一乎? 泰遠對曰, 秋後第一矣”

23) 『승정원일기』 丙戌四月二十八日午時. “鳳漢曰, 今此殿中, 似難諸宰之盡爲入侍, 勿論有事與有稟者, 定數輪回入侍則好矣.”

24) 『승정원일기』 丙戌四月二十八日午時. “命追入三大臣, 出瞻御製序若詩, 仍觀崔錫鼎記文. 鳳漢等出瞻後, 還伏曰, 果是集慶, 而臣等竹得見前後之慶, 又相符矣”

2. 영조의 다작(多作)

영조어제의 양은 상당히 방대한데 1714년에서 1764년까지의 작품이 수록된 『어제(御製)』, 1731년에서 1775년까지의 작품이 수록된 『영종대왕어제습유(英宗大王御製拾遺)』, 1758년에서 1760년까지의 작품이 수록된 『영종대왕어제속편(英宗大王御製續編)』, 1759년 이후의 글을 수록한 『어제서시세손(御製書示世孫)』, 1761년에서 1763년까지의 작품을 수록한 『영종대왕어제(英宗大王御製)』,²⁵⁾ 1764년에서 1767년까지의 작품을 수록한 『어제집경당편집(御製集慶堂編輯)』, 1768년에서 1770년까지의 작품을 수록한 『어제속집경당편집(御製續集慶堂編輯)』²⁶⁾ 등이 있다. 이처럼 영조어제 중에 1714년 세자시절부터 1770년 77세까지의 작품은 대부분 책자로 묶여져서 책자류에 속해 있으나 1771년 이후 1776년 승하할 때까지의 글 중에 영조가 편찬 출판한 글 외의 대부분은 첩자로 만들어져서 봉모당(奉謨堂)에 봉안되었다.²⁷⁾ 이 영조어제 첩자류 5,000여건은 대개 1771년 이후 승하하기 전까지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조는 50세 이후에 「어제상훈(御製常訓)」 및 「어제상훈언해(御製常訓諺解)」(1745년), 「어제자성편(御製自省篇)」(1746년) 및 「어제자성편언해(御製自省篇諺解)」 및 「어제정훈(御製政訓)」(1749년), 「어제훈서(御製訓書)」 및 「어제훈서언해(御製訓書諺解)」(1756년), 「어제계주음(御製戒酒綸音)」과 「어제고금년대귀감(御製古今年代龜鑑)」(1757년), 「어제경세문답(御製警世問答)」(1761년), 「어제경세문답언해(御製警世問答諺解)」, 「어제경민음(御製警民音)」, 「어제경세문답속록(御製警世問答續錄)」(1762년), 「어제효제편(御製孝悌篇)」(1763년), 「어제조훈(御製祖訓)」 및 「어제경세편(御製警世編)」(1764년), 「어제백행원(御製百行原)」(1765년), 「어제소학지남(御製小學指南)」(1766년), 「어제독서록(御製讀書錄)」(1767년), 「어제풍천록(御製風泉錄)」(1771년), 「어제팔순서시후곤록(御製八旬書示後昆錄)」 및 「어제권세위효제문(御製勸世爲孝悌文)」(1773년), 「어제조손동강대학문(御製祖孫同講大學文)」(1775년) 등을 저술 편찬

25) 이상은 『英祖文集補遺』(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에 영인 출판되었다

26) 이상은 『英祖·莊祖文集』(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에 영인 출판되었다

27) 봉모당은 正祖가 영조의 御製·御墨의 刊本과 탁본 그리고 등사본을 비롯한 열성조의 어제·어필 등 典謨資料를 봉안하기 위해 즉위년(1776년)에 창덕궁 宙舍樓 서남쪽의 閱武亭을 개조하여 건축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의 역사와 자료적 특성』(1996), 8~9쪽.

하였는데 대개 훈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글들로 영조가 자신을 윗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조어제의 많은 작품들이 이처럼 윗사람 또는 노왕으로서의 추모와 훈계, 자성(自省)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은 대부분의 저작이 만년에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많은 작품을 남긴 면모는 이전의 왕에게 없던 일이었다.

3. 독특한 문체의 창조

영조의 『집경당편집』에 실린 작품들은 형식에 있어서 특히 독특한 면모를 보인다. 1767년 74세에 쓴 「자성옹자탄(自醒翁自歎)」의 형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성옹이여 자성옹이여 그대 어찌 자탄하는가?
 비록 이 존호로 부리더라도 명과 실이 같지 않아서네
 자성옹이여 자성옹이여 그대 어찌 자탄하는가?
 이로써 명령하고 마음 일찍이 부끄러웠기에
 自醒翁自醒翁 君何自歎 雖稱此號 名實不同
 自醒翁自醒翁 君何自歎 以此命舍 心嘗歉然²⁸⁾

이 율문은 이렇게 내외구의 음수가 다른 앞구가 반복되고, 뒷구가 4·4구인 형태로 총 20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양식은 “영조는 자신의 일상적 생각을 장황하게 이어지는 반복적 구절을 사용하여 가사와 같은 형태로 슬회하고 있다”²⁹⁾는 평가를 받았거니와 영조 어제 첩자류에 있는 3언 형식의 율문 역시 이전에 없던 독특한 형식이다. 한 작품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³⁰⁾

28) 「自醒翁自歎」, 『御製集慶堂編輯』 권5, 26장; 『英祖·莊祖文集』, 111 쪽

29) 최봉영, 「영조·장조문집 해제」, 위의 책 11 쪽

30) 『어제집경당편집(御製集慶堂編輯)』에서도 독특한 형식들이 많이 실험되고 있지만 어제 첩자류에 압도적으로 보이는 3언 율문은 한 편도 없다. 반면에 어제첩자류의 율문은 3언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특히 3언은 80대인 갑오년(1774년)과 을미년(1775년) 간에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필자가 속한 영조어제 해제팀은 한국한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2005년 9월부터 영조어제첩 5천여건 중 30% 정도를 해제해 왔는데 정확한 통계는 3년 후 전체 해제를 완료한 후에 집계되었으나 첩부된 간기로 확인한 결과 갑오, 을미년에 3언 율문이 집중적으로 창작되었음을 확

스스로 강개하나	어찌 회포 누르리
아아! 금년에	이 날을 맞이 하니
이를 효라 하리	마음 어찌 누르리
예년을 생각하니	천만슬픔 품어진다.
장차 헌작 하려니	이는 어떤 마음인가?
여든두살 되버린	금년의 초기에
진실로 막막하고	더욱이 구차하네
이 세상에 앉아 보니	전생갈게 여겨지네
마음은 뜬 구름이요	뜻은 멀리 떨어졌네
오늘은 어떻게	정말로 지탱할까?
自慷慨 曷勝懷 嗟今年 逢今日	
是曰孝 心何抑 憶昔年 懷千萬	
將酬應 此何心 八十二 今年初	
誠冥然 亦苟且 坐今世 若前生	
心浮雲 意楚越 今日何 誠支撐 ³¹⁾	

이 율문은 영조 51년(1775) 6월 9일에 읊은 것으로 그 전날이 선왕인 숙종의 기신일(忌辰日)이었으므로 효심을 억누를 수 없어 읊었다고 한다. 이 글의 내용은 일상적이지만 형식은 유래를 찾기 어려운데 누구도 쓰지 않는 이런 형식의 글을 당당히 쓸 수 있었던 점은 만년 영조의 특징적인 면모이다.

이상에서 살펴바와 같이 영조는 만년에 독자적인 거처에서 독특한 문체의 다량의 작품을 남겼다. 그런데 이 어제에는 자신이 관계했던 궁궐명이 다수 나타나는데 이 중에 영조가 임의로 명명한 궁궐명이 있어 주목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궁궐명을 중심으로 그 흥폐와 영조의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할 수 있었다. 영조의 독특한 율문 창작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을 통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31) 『御製慷慨』(K4-673).

IV. 영조의 궁궐 인식

영조는 ‘경덕궁(慶德宮)’을 ‘경희궁(慶熙宮)’으로 즉, 궁의 이름까지 바꾼 인물이다.³²⁾ 그만큼 궁궐의 명명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데, 정작 숙종처럼 건물을 짓거나 개명하는데 있어서는 소극적이었던 듯하다. 다만 오랫동안 살면서 궁궐 건물에 많은 편액을 만들었는데 ‘흠경각(欽敬閣)’과 ‘경봉각(敬奉閣)’처럼 원래 이름을 그대로 쓰거나³³⁾ ‘학사관(學士館)’처럼 본래 ‘홍문관’을 의미가 통하는 다른 이름을 붙이는 정도였다.³⁴⁾

그런데 만년의 영조는 가족이 생각나는 공간을 ‘억석와(憶昔窩),’ ‘추모동(追慕洞),’ ‘추모당,’ ‘추모현(追慕峴)’ 등으로 명명하거나 거쳐하던 집경당을 ‘정와당(靜臥堂),’ ‘종용당(從容堂)’ 등으로 명명하는 등 궁궐에 대해 독자적인 명칭을 부여했는데 이들 이름을 붙인 이유와 해당 건물의 연혁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억석와(憶昔窩)와 회상전(會祥殿)

회상전에 대해서는 정조어제 「경희궁지」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대내의 정침은 융복전이요 융복전 서쪽에 회상전이 있는데 왕을 모시던 내전이다.³⁵⁾

원래 궁궐의 침전은 왕의 정침(正寢)과 소침(小寢) 그리고 왕비의 침전으로 나

32) 영조는 1760년에 경덕의 궁명이 원종(元宗)의 시호 ‘공량경덕(恭良敬德) 인헌정목(仁憲靖穆) 장효대왕(章孝大王)’의 경덕(敬德)과 동음이라 하여 경희(慶熙)로 고쳤다 『궁궐지』 「경희궁지」 “慶熙宮 舊名 慶德宮 英宗三十六年庚辰以與章陵諡號同音 改慶德宮爲慶熙宮”

33) 이는 「창덕궁지」 경봉각조에 있으며, 궁중유물전시관에서 출판한 『영조대왕 글·글씨』(미술문화 2001)을 보면 경희궁의 ‘규정각(揆政閣),’ ‘복수당(福綏堂),’ 인조 잠저인 어의궤(於義館)의 ‘봉안각(奉安閣),’ 돈녕부(敦寧府)의 ‘돈녕부’ 등이 있다

34) 이는 「창덕궁지」 홍문관조에 있으며, 아울러 상의원(尙衣院)조에는 ‘불면각(黻冕閣)’이라는 어필이 있다고 하였다.

35) “大內之正寢爲隆福殿 隆福殿之西會祥殿在焉 侍御之內殿也” 「正祖御製慶熙宮志」 제2 판 『궁궐지』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0), 109 쪽

뉘며, 왕과 왕비가 함께 지낸 장소는 시어소(時御所) 라고도 했는데 대개 왕비의 침전을 일컬었다. 경복궁이 정궁으로서 정침(康寧殿), 소침(誕生殿 慶成殿), 왕비의 침전(交泰殿) 등을 모두 갖춘 반면 이궁인 창경궁이나 경희궁에는 정침(歡慶殿, 隆福殿)과 왕비의 침전(景春殿과 通明殿, 회상전)만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³⁶⁾

회상전은 『궁궐지』에서 승정전 동북쪽에 있는 대내 정전이라고 하였다.³⁷⁾ 그리고 증보된 내용 중 회상전에 대해 연차별로 정리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조4년(1626) 병인 정월 인헌왕후(仁獻王后-元宗妃) 구씨(具氏) 승하
 현종2년(1661) 신축 8월 숙종대왕 탄생
 현종15년(1674) 갑인 2월 인선왕후(仁宣王后-孝宗妃) 장씨(張氏) 승하
 숙종6년(1680) 경신 10월 인경왕후(仁敬王后-肅宗妃) 김씨 승하
 순조34년(1834) 갑오 11 월 순조 승하

이 기록은 실록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런 기록들을 볼 때 실제적으로도 광해군대에 영건된 경희궁의 회상전은 대개 왕후가 머물다가 승하하던 곳으로 추정하게 된다.³⁸⁾

영조는 회상전에 대한 추모의 글을 10편이나 남겼다.³⁹⁾ 그런데 추모의 대상은 회상전의 주인인 왕후가 아니라 선왕이다. 즉 이 중에 「어제회상전(御製會祥殿)」(K4-5399)을 보면 숙종과의 추억만을 다루고 있다.

회상전 옛날 추억하니	會祥殿 憶昔年
이제 팔십이라 정말로 아득하구나	今八旬 誠冥然
전은 예와 같되 어디서 문안하랴	殿猶古 何問寢
지난 신묘년이 어제같은데	昔辛卯 況若昨
남쪽에 흥정당 북쪽에 봉황정	南興政 北鳳凰

36) 김영모·최기수, 「조선시대 궁궐공간의 개념적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25권 4호(1998), 146-148쪽. 이 논문에서는 또한 창덕궁에는 왕의 정침으로서 兩儀殿, 소침으로서 麗日殿과 淨月殿 등이 있었으나 세조 이후 모두 사라졌으며, 왕비의 침전인 大造殿만 남아 있다고 하였다.

37) “會祥殿在崇禎殿東北, 卽大內正殿” 제2판 『궁궐지』(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0), 111 쪽

38) 반면에 용복전은 숙종이 승하한 곳이므로 실제적으로도 왕의 침전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39) 「御製會祥西」(K4-5395); 「御製會祥殿」(K4-5396-5404); 「御製會祥殿長樂殿」(K4-5405).

동쪽에 응복전 서쪽에 덕유당	東隆堂 西德游
팔월 어가 모심 이젠 꿈이니	八朔侍 於今夢
전엔 18세요 지금은 팔십일세	昔十八 今八旬
「오아」 외고 「풍천」 읊으니	誦蓼莪 詠風泉
천만가지 회포에 추모는 더해	懷千萬 慕億百

이 글의 후기에는 “歲甲午月仲春己亥”라고 되어 있어 영조가 81세이던 1774년 2월 16일에 지은 글임을 알 수 있다. 영조는 제3 구에서 회상전은 예전대로 남아 있는데 문안드릴 곳이 없다고 하면서 신묘년 8월 자신이 18세일 때를 추억하고 있다. 영조의 18세 때 대표적인 추억은 선왕의 어가를 수행하여 태묘 등에 전할 일과 선왕의 앞에 나아가 소대를 행한 일 등이다. 영조가 자신의 생평을 서술한 「어제금팔순성명연(御製今八旬誠冥然)」(K4-1488)을 보면 “신묘년 18세 8월에 태실에 전할 때 처음으로 어가를 수행하였으며, 같은 달 강릉(명종의 능)에 전할 때도 어가를 수행하였다.(辛卯十八歲八月太室展謁時初隨駕同月康陵亦爲隨駕)”고 하였다 『속중실록』을 보면 8월 7일과 19일에 각각 숙종이 왕세자와 태묘와 강릉을 전할 하였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를 수행하면서 숙종을 모신 일이 중요한 추억이었던 셈이다.⁴⁰⁾ 또 영조는 “지난 신묘년 바로 내 나이 18세였는데 회상전을 우러러 보며 소대를 행할 때에 『절작통편(節酌通編)』을 강독하였다”고 하고 있다.⁴¹⁾ 이처럼 18세의 추억에서 영조는 회상전을 선왕인 숙종의 대명사로 쓰고 있다.

그런데 18세 때의 추억만으로 80세가 되어서도 회상전을 숙종의 대명사로 지칭한다는 점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차라리 숙종이 탄생한 장소이기 때문에 회상전을 선왕의 추모 장소로 설정했다는 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회상전의 남쪽에 있었다는 역석와(憶昔窩)는 회상전과 어울려 새로운 단서를 제공한다.

아아! 경희궁 연화문 안에 동쪽에 사알방(司諫房)이 있으니 이는 바로 내가
칠년간 시탕하던 때에 바로 머물던 곳이다.⁴²⁾

40) 『肅宗實錄』권50, 숙종37년 8월 7일 甲子, 같은 해 8월 19일 丙子.

41) 『英祖實錄』권116, 영조47년 3월 25일 丙寅. “故辛卯 卽子年十八歲 而仰觀會祥殿 行召對時 講『節酌通編』.”

임금이 말하기를 ‘예방승지는 들어오라 석정이 들어오니 임금이 친히 역석와 세글자를 써서 내려주며 말하기를 ‘지금의 사알방은 바로 형이 예전에 시탕한 곳이니 이곳을 지날 때 문득 슬픈 마음이 일어 다음과 같이 썼으니 승지는 직접 판각하는 걸 검사하여 곧 걸어야 할 것이다.’ 석정이 종이를 받아 물리나고 임금은 대내로 들어갔으며 모든 신하는 물리났다.⁴³⁾

이 ‘역석와’는 ‘역석랑(憶昔廊)’이라고도 하는데 회상전의 남쪽에 있었다고 한다.⁴⁴⁾ 영조는 ‘역석’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 이렇게 건물명에 붙였을 뿐 아니라 간지에도 ‘憶昔年 憶昔月 憶昔日’ 등을 붙일 정도였다.⁴⁵⁾ ‘역석’은 사전적으로는 ‘예전 일에 대한 추억’으로 풀이할 수 있지만 영조의 어제에서는 대개 ‘선왕에 대한 추모’의 뜻으로 쓰고 있다. 이와 같은 면모는 “역석난”을 쓸 때 ‘석 앞에 한 자를 띄는 표기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제역석와문답(御製憶昔窩問答)」(K4-3394)은 100구로 이루어진 시로 매 구마다 ‘予且問, ‘此窩答’을 번갈아 반복하면서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석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이제 와서 물어보네 “예전을 기억할 수 있는가?”	今來問 能憶昔
역석와가 대답하네 “지난날과 같군요”	此窩答 若昨日
내가 또 물어보네 “그때가 무슨 해인가?”	予且問 其何年
역석와가 대답하네 “바로 금년과 같은 간지라오”	此窩答 卽此歲
내가 또 물어보네 “내 나이를 아시는가?”	予且問 知子年
역석와가 대답하네 “스물 한 살이었지요”	此窩答 二十一

42) “噫, 慶熙延和門內, 東有司謁房, 此卽予七年侍湯之中, 直宿處也” 「記懷, 『御製續集慶堂編輯』2-19a, 『英祖·莊祖文集』(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59 쪽

43) 『承政院日記』 46년 4월 14일 辛酉 “上曰 ‘禮房承旨進來’ 錫定進前 上親書憶昔窩三字以下曰 ‘今司謁房, 卽重兄昔年侍湯處也. 過此時, 輒有愴懷, 故書此以下, 承旨親檢刻板, 卽爲懸之, 可也.’ 錫定祇受而退, 上入大內 諸臣退出”

44) “噫 隆福有西廊 會祥之南 集慶之東 于今望八 一倍興懷 何以興懷 憶昔以然 噫 七年侍湯 況然若昨 此廊卽中官待令 晝夜測候 凡 自內有教 自外有稟 以承以奏處也 余於少時侍坐之餘 與中官同處于此 深冬長夜 揮裘擁爐 噫 侍湯不肖 庚子以後 溟然食息 今已七旬有二 噫 廊卽雖存 故事何觀…” 「御製憶昔廊小識」(K4-3272).

45) 「御製亥子日」(K4-5323).

내가 또 물어보네 “금년은 몇 살이지요”
 역석와가 대답하네 “여든 한 살이지요”

予且問 今年何
 此窩答 八十一

이 시에서 역석와가 말한 21세는 1714년 갑오년으로 이때 영조는 8개월 간 이 역석와에서 머물면서 시탕한 일로 숙종에게서 글과 말과 어진을 받았다고 추역하고 있다.⁴⁶⁾ 이처럼 역석와를 제목으로 하는 글로는 「어제역석와(御製憶昔窩)」(K4-3389)에서 「어제역석와흥회(御製憶昔窩興懷)」(K4-3402)까지 14편이나 있다.⁴⁷⁾

이로 볼 때 영조에게 추억의 장소는 선왕을 시탕하던 사알방이며, 그곳에서 시탕하던 선왕이 있던 장소가 회상전이기애 아울러 추모의 장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추모의 글들을 볼 때 영조는 선왕을 모시고 능행을 다니거나 배움에 대한 점검을 받을 때에도 함께 했지만 무엇보다 편찮았을 때의 선왕에 대한 기억이 남달랐기에 사알방을 역석와로 이름한 듯하다.

2. 탄생당(誕生堂)이라 명명한 보경당(寶慶堂)

보경당은 창덕궁에 있는 별실로 세조대부터 집무실로 활용되어 왕이 경연, 신하 접견, 시사 의논, 연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용도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⁴⁸⁾ 그러나 『궁궐지』에는 선정전(宣政殿) 북쪽에 있는 이 보경당을 영조의 출생지로만 소개하고 있다.⁴⁹⁾ 왕의 집무공간이 왜 숙빈의 출산 공간으로 바뀌었는지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다. 다만 영조가 태어나기 전에는 원지(元子)인 경종이 머물렀던 곳이라 하니 적어도 경종 출생 후부터는 왕자의 생활공간으로 활용

46) “甲午年 二十一歲 以八朔直宿 受御筆諭書圖像廐馬.” 「御製今八旬誠冥然」(K4-1488).
 47) 「御製憶昔窩」(K4-3389); 「御製憶昔窩」(K4-3390); 「御製憶昔窩」(K4-3391); 「御製憶昔窩記懷」(K4-3392); 「御製憶昔窩問答」(K4-3393); 「御製憶昔窩問答」(K4-3394); 「御製憶昔窩問答」(K4-3395); 「御製憶昔窩若昔年」(K4-3396); 「御製憶昔窩憶古」(K4-3397); 「御製憶昔窩憶昔」(K4-3398); 「御製憶昔窩憶昔」(K4-3399); 「御製憶昔窩憶昔」(K4-3400); 「御製憶昔窩自歎」(K4-3401); 「御製憶昔窩興懷」(K4-3402).
 48) 『世祖實錄』 권43 세조13년 9월 28일 庚寅 “御寶慶堂 召領議政崔恒 仁山君洪允成 左贊成金國光 工曹判書任元濬 中樞府同知事洪應 刑曹判書徐居正 玉山君躋 都承旨權孟禧設酌.” 『世祖實錄』 권47 세조14년 8월 21일 戊申 “上不豫 諸宗宰問安 引見于寶慶堂後庭 召丘從直等 讎校詩口訣 仍設酌.”
 49) “寶慶堂在宣政殿北, [增] 肅宗二十年甲戌九月 英宗大王誕生于此” 제2 판 『궁궐지』(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0), 33쪽.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⁵⁰⁾

『궁궐지』에는 이어서 영조의 글인 「기묘년 3월 9일 보경당에서의 회포 己卯三月初九日 紀懷於寶慶堂」를 소개하고 있는데 『영종대왕 어제속편』에도 수록된 이 글은 보경당이라는 건물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록 같이 보인다.

아아! 70세가 다 된 나이에 복膈을 입은 채로 차마 이 달을 맞고 또 이 날을 맞아 나를 낳고 키운 이 당에 머물게 되었구나. 아아! 이 해(기묘년)에 돌아가신 생모는 이 당에 계셨고 나는 건극당(建極堂)에 있었는데 임진년(1712—창의동 사저로 나감) 이후 대궐에 들 때 이 당에 들렀고, 갑진년(1724—경종 승하) 초막 생활할 때도 또 이 당에 있었으며 무진년(1748) 봄에 선정전(宣政殿)에 영정도감(影幀都監)을 설치할 때 열흘간 이 당에서 머물렀지 그리고 그 후 생모의 기일에는 이 당에 머물 때가 있었지. 아아! 이 날은 몸소 제사를 지내야 마땅할 것이나 2월 초하루에 이미 전배(展拜)를 거행했고, 오는 27일에 또한 원소(園所—후궁묘)에 전배할 것이니 이번에는 생모에 대한 정을 누르고 다만 몸소 전향례(傳香禮)를 할 뿐이네. 오늘 밤 비록 이곳에서 머문 들진실로 효도가 부족하여 감응을 보지 못할 걸세. 아아!! 효도인가? 아닌가? 아아! 무술년 삼월(1718. 3—숙빈 최씨 죽음)에 마음이 이미 굳었고 정축년(1757) 3월(1757. 3—仁元王后 大祥)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네.⁵¹⁾

이글은 영조 자신이 보경당에 머물던 기억을 자세히 서술하면서 특히 생모인 숙빈 최씨와의 기억을 많이 다루고 있으며, 어머니에게 효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을 토로하고 있다. 또 영조가 71세에 지은 「어제보경당기회(御製寶慶堂紀懷)」(K4-2414)에서도 자신이 보경당에 태어나 19세에 사저로 갈 때까지 머물렀으며, 사저로 간 뒤에 궁에 예궐할 일이 있으면 어머니와 머물렀다는 사실을

50) 『숙종실록』 권22, 숙종16년 5월 20일 경술 “上曰 ‘熙政堂亦不便當 卽今元子在寶慶堂 卽其所居設行 而地勢狹窄 儀仗則排設於敦禮門外 可矣’ 後以其狹窄 更以熙政堂爲定”

51) “嗚呼! 望七服衰 忍逢此月, 又逢此日 宿于生我劬勞之堂 嗚呼! 此歲 先妣在此堂, 予則在建極堂 而自壬辰以後, 詣闕時留于此堂. 甲辰居廬 亦於次堂. 戊辰春 宣政殿設 影幀都監時, 十日亦宿于此堂 而其後 先妣忌辰, 宿此堂者有之 嗚呼! 此日 其宜躬祀 而仲春初吉 已行展拜 來二十七日 亦將拜園, 故今番抑情 只行親傳香之禮 是夜雖宿于此 而誠孝淺薄 莫見感應 嗚呼! 孝乎否乎 嗚呼! 戊戌三月 此心已冷, 丁丑暮春 尤無世念.” 「己卯三月初九日紀懷於寶慶堂」, 『영종대왕어제속편』 권3, 27a, 『영조문집보유』(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55 쪽

반추하고 있다.⁵²⁾

이로 볼 때 숙빈 최씨는 영조를 보경당에서 출생한 뒤에도 계속해서 보경당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영조가 보경당에 ‘탄생당’이라는 편액을 붙인 것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라는 의미보다는 생모인 숙빈 최씨가 ‘영조 자신을 낳은 곳’이라는 의미로 명명한 것이요 또한 ‘생모가 생전에 거처하던 곳’이라는 점에서 보경당을 어머니의 자취가 남은 ‘궁궐’로 추억했다고 볼 수 있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淑嬪) 최씨(崔氏)는 7세에 궁궐로 들어와 후궁으로 있다가 1694년(숙종 20) 9월 13일에 영조를 낳았고, 1718년(숙종 44) 3월 9일에 죽었다. 영조는 1725년(영조 1) 돌아가신 생모를 위하여 사당(祠堂)을 짓고, 20년 후에 묘호(廟號)를 고쳐 정하여 ‘육상궁(毓祥宮)’이라 하였고, 묘소는 ‘소령원(昭寧園)’ 시호를 ‘화경(和敬)’이라고 추상(追上)하였다.

생모의 궤연(几筵)에 올린 치제문 초고인 「영묘어필 친제문초(英廟御筆親製祭文章)」(K4-3039)는 영조의 친필인 점이 특별하거니와 생모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엿보게 하는데 영조에게 보경당은 그런 어머니가 생활한 공간이요 또 영조를 낳음으로 해서 생모가 존귀하게 된 공간이기도 하다. 보경당은 영조 모자에게 궁궐의 여러 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인 셈이다.

3. 추모당(追慕堂)이라 명명한 경선당(慶善堂)

경선당은 경희궁에 있던 별실로 숙종 초에 왕이 잠시 소송을 결정하는 집무장 소로 썼으며⁵³⁾ 한편 세자빈 심씨의 혼궁(魂宮)으로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어린 영조의 거처로 사용되면서 영조조에도 세자가 머무는 동궁으로 사용하였다. 영조는 경선당을 추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아! 이달에 내 마음은 온갖 생각이 나는구나 15일에 시호를 올려드린 뒤 양정재(養正齋)를 보며 추모하였으며, 그믐에 장락전(長樂殿)을 바라보았고, 다

52) “先妣誕予于此堂，予年十九，乃就私邸，其後入闕之時，隨先妣此堂。” 「어제보경당기회(御製寶慶堂紀懷)」(K4-2414).

53) 『숙종실록』권1, 숙종1년 7월 1일 丁亥 “上御慶善堂 疏決罪囚 皆微賤雜犯也”

시 광명전을 보았으며 돌아올 때에 경선당을 들렀는데 이 뜻이 어디 있겠느냐
 지난 임진년 2월 12일 잠저로 나가기 전 19년간 부모님을 모시던 곳이라네
 (하락. 54)

『궁궐지』에는 경선당이 집희당(緝熙堂) 남쪽에 있다며 영조의 술회시를 소개하
 고 있다. 그리고 ‘追慕堂’이라는 영조의 어필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로 볼
 때 영조가 이당을 부모를 추모하는 당으로 여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⁵⁾

영조는 「경선당」이라는 제목의 시를 몇 편 남겼는데 그 중에 81세에 지은 「어
 제경선당(御製慶善堂)」(K4-1067)을 보면 다음과 같다.⁵⁶⁾

광명전 남쪽 경선당,	慶善堂 光明南
옛날 생각하면 온갖 회포가	憶昔年 懷千億
부모 모실 때가 전생 같아,	昔時奉 若前生
노년에 어찌 회포를 누르리	況暮年 曷勝懷
예전 은혜 입음이 어제 같아	古承歡 況若昨
밥먹을 때도 모두 보셨지	予於食 皆臨視
내가 잘 때도 꼭 보았는데,	予於宿 必也見
19세 사저로 간 뒤	十九年 就邸後
집희당에 올라 또 나를 생각하니,	陞緝熙 亦憶予
계사년 강화도에서 뵈고	癸巳年 詣江都
이 당에서 기다렸고,	臨此堂 以待焉
문후드릴 때도 꼭 여길 왔지	問候入 必來此
아! 경선당은 보경당 같고,	嗟慶善 若寶慶
아! 집희당은 의춘헌 같네	嗟緝熙 若宜春
전에 경선당에서는 예전에	昔慶善 於昔年

54) “嗚呼! 此月予懷千萬, 十五日 上諡後, 入瞻養正齋矣 已追慕 今晦日瞻長樂殿 復見光明殿 回時入 慶善堂. 嗚呼! 此意焉在? 前壬辰年二月十二日, 就邸前十九年 侍奉此堂故也 (하락)” 「어제경선당 서문전 기회(御製慶善堂西門前記擧)」(K4-1069).

55) “慶善堂 在緝熙堂南, 英廟御筆 追慕堂” 제2판 『궁궐지』(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0), 136쪽.

56) 이 외에 80세에 지은 「御製慶善堂」(K4-1066)과 지은 연대를 알 수 없는 「御製慶善堂」(K4-1068) 등이 있다.

생신때마다 문안을 드렸는데 (중략)	每生辰 朝問安
아! 오늘 간지를 보니,	嗟今日 見干支
경자일이니 온갖 생각 나네	卽庚子 懷千萬
무술년에는 영모당에서	戊戌年 永慕堂
경자년에는 융복전에서	庚子年 隆福殿
심장 쓸개 모두 손상되었네	心與膽 其皆損
그래도 모두 정성을 드리네	其雖然 皆伸忱
무술년 3월에	戊戌年 於三朔
경자년에 또 5월	庚子年 亦五朔
고령을 따라 용현을 따라,	高嶺隨 龍峴隨
일청헌에서 자정전에서	壹淸軒 資政殿
마음 어찌 누르리 온갖 회포,	心何抑 懷千萬
강개함을 어찌리 억만 추모를	曷勝慨 慕億百

영조는 어린 시절을 모두 경선당에서 보냈고 선왕과 선비는 영조의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영조가 사저로 나간 뒤에는 생신 때나 의식이 있을 때나 와서 뵈 수 있었으며, 무술년(1718) 3월에는 선비 숙빈 최씨가 경자년(1720) 5월에는 선왕 숙종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슬퍼하면서 부모의 장지(葬地)와 빈청을 추억하며 추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어릴 때 자신이 밥 먹는 모습과 잠자는 모습을 보고도 기뻐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형상화하였고 아울러 그런 부모를 잃은 자식의 애통한 마음을 잘 드러내었다. 숙종은 경선당에 자주 와서 어린 왕자의 재롱이나 커가는 모습을 보곤 했으며, 영조는 이렇게 늘 자신에게 시선을 주었던 부모를 잊지 못한 듯하다. 경선당은 영조가 19 세까지 거처했던 대표적인 왕자의 거처였던 셈이다.

4. 정와당(靜臥堂) · 종용당(從容堂)이라 명명한 집경당(集慶堂)

집경당은 원래 예연당(藥淵堂)이었는데 경사스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여 숙

중이 1699년에 고친 이름이다.⁵⁷⁾ 즉 1661년 숙종이 태어나서 3일 뒤에 이 당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1671년 혼인을 했을 때도 이 당에 왔으며, 1699년에는 세자가 이 당에서 천연두를 회복했었으므로 이 때에 이름을 고친 것이다.

영조는 만년에 이당에 거처하다가 83세에 승하하였다.⁵⁸⁾ 71세부터 77세까지의 글을 모아 『어제집경당편집(御製集慶堂編輯)』이라는 문집을 엮기도 하였으며, 이후 83세까지 지은 글 등 5천여권이 현재 장서각에 첩으로 보존되어 있다. 영조에 게 이 당은 사적인 생활공간이면서 집무 공간이기도 하였다.

영조는 집경당에서 전강(殿講)을 시험하기도 하였고,⁵⁹⁾ 도목정사(都目政事)를 실시하기도 하였다.⁶⁰⁾ 주강(晝講)을 하기도 하였는데⁶¹⁾ 이런 집무공간인 집경당을 영조는 편안히 여겼다.

집경당이여 집경당이여	集慶堂 集慶堂
9월부터네 9월부터네	自九月 自九月
이 당에서 오래, 이당에서 오래	長此堂 長此堂
이제 오개월이네. 이제 오개월이네	今五朔 今五朔
당에 몸이 편하고, 당에 몸이 편하고	堂已便 堂已便
마음 또한 편하네 마음 또한 편하네	心亦安 心亦安
지금 이당에서 지금 이당에서	今此堂 今此堂
내게 얻어진 건 내게 얻어 진 것은	於予得 於予得
낮에 이미 편하니 낮에 이미 편하니	晝已便 晝已便
밤에 또한 편하네 밤에 또한 편하네	夜亦安 夜亦安
여든 두 살에 여든 두 살에	八十二 八十二 ⁶²⁾
(하략)	

57) “初名藥淵 肅宗二十五年 改號曰集慶” 제2 판 『궁궐지』(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0), 115 쪽
 58) 『承政院日記』를 보면 66세인 영조42년 4월 27일부터 매일 집경당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 이때부터 영조의 집경당 생활이 본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59) 『영조실록』권108, 영조43년 1월 22일 丁亥. “上御集慶堂, 試到記儒生殿講, 幼學金履權·方宗學命直赴殿試.”
 60) 『영조실록』권108, 영조43년 6월 30일 壬戌. “上御集慶堂, 親行都政.”
 61) 『영조실록』권116, 영조47년 9월 2일 己亥. “上御集慶堂 行晝講”
 62) 『御製集慶堂』(K4-4605).

이 시는 권말의 간지에 의하면 1775년 1월 28일 영조가 82 세에 쓴 글로 아침 저녁으로 집경당에서의 생활이 편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영조는 이 당에 가만히 누워있거나[靜臥], 조용히 지냈으며[從容], 이 당을 정와당(靜臥堂), 종용당(從容堂)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런 제목으로 지은 작품으로 「어제정와당(御製靜臥堂)」(K4-4315, K4-4316, K4-4315), 「어제정와당자민주야장(御製靜臥堂自悶晝夜長)」(K4-4318), 「어제종용당(御製從容堂)」(K4-4372~4382), 「어제종용당심동동(御製從容堂心憧憧)」(K4-4383) 등이 있다. 영조는 종용당의 명명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종용당은 바로 이 당이니	從容堂 卽此堂
그 무슨 뜻으로 이렇게 이름 붙였나	其何意 命此名
지난 구월에 탄생한 달 초하루에	前九月 誕一日
이곳에서 조섭와서 오늘까지 이르렀네	調攝此 至今日
아! 삼월까지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으니	嗟三朔 長在此
지금 이렇게 이름 붙임이 어찌 우연이리	今命名 豈偶然
낮에는 종일 몸을 의지했었고	其於晝 日貼身
밤에도 인경 소리 물었었던 곳	亦於夜 問更鼓
아! 오늘은 나라가 경사스럽다 하지만	嗟今日 曰邦慶
이 당에 있으면서 또 시간을 보내네	居此堂 亦有時
비록 그렇더라도 오히려 예전을 추억하리	其雖然 猶憶昔
추모의 마음 깊고 천만가지 회포 생기네	追慕深 懷千萬
회상전은 그 동쪽에 있고	會祥殿 在其東
덕유당 또한 서쪽에 있으며	德游堂 亦在西
일영문은 바로 남쪽에 있고	日永門 卽在南
봉황정은 또한 그 북쪽에 있네	鳳凰亭 其亦北
아! 이 당에서 내게 얻어진 일은	嗟此堂 於予得
밤과 낮에 내가 절로 편하다는 점	晝與夜 予自便
간지를 쓰니 갑술일이요	書干支 甲戌日
특별히 이름을 붙이니 종용당이라	特命名 從容堂 ⁶³⁾

63) 「御製從容堂」(K4-4374).

권말의 간지를 보면 ‘甲午年至月甲戌日’로 되어 있으므로 이 시를 지은 시기는 영조가 81세인 1774년 11월 25일로 이날은 영조의 빠진 이가 새로 난 날이기도 하다.⁶⁴⁾ 영조는 이 날 자신이 거처하는 집경당의 명칭을 종용당이라고 명명했다고 하는데 이 시를 볼 때 본래 영조가 집경당에 머물게 된 것은 조섭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의도대로 이곳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었음을 엿볼 수 있다 ‘종용은 그렇게 얻은 마음의 상태이며 동시에 당의 모습이기도 하다.

5. 구저(舊邸)라 불렀던 창의궁(彰義宮)의 함일재(咸一齋)⁶⁵⁾

영조는 본래 둘째였기 때문에 창의궁에서 궁밖 생활을 경험하였는데 이를 ‘구저(舊邸)’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많은 작품을 남겼다.⁶⁶⁾ 이는 자신이 경험한 궁밖의 공간에 대한 애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손들의 묘가 있는 장소였기 때문인데 아들인 효장(孝章)과 사도세자(思悼世子), 맏며느리인 효순현빈(孝純賢嬪)과 손자인 3살짜리 의소세손(懿昭世孫)의 묘가 모두 이곳에 조성되어 있었다. 특히 함일재는 원래는 효종의 부마인 인평위(寅平尉) 정제현(鄭濟賢)이 거처했던 장소로⁶⁷⁾ 영조에게는 10세라는 어린 나이에 죽은 효장을 얻고 또 잃은 장소이기에 창의궁 함일재는 그 추억의 상징물이 되었다. 영조는 함일재에서 온갖 회포에 잠긴다면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64) 『영조실록』 권122, 영조50년 11월 25일 甲戌 “上落齒復生”

65) 본래 “구저(舊邸)”란 다만 ‘옛날 저택’이라는 뜻의 보통 명사인데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에서 “舊邸”를 검색하면 90건이 검색되는데 이 중에 태조 세종 세조 및 영조조에 그쳐 옛 저택이란 뜻으로 쓰인 용례가 11건이며 영조 20년 이후의 용례로 79 건의 ‘구저’는 의소묘 등 자손의 묘가 있는 공간으로 거론된다.

66) ‘舊邸’를 주제로 한 작품은 「御製舊闕舊邸慕萬懷(K4-1191); 「御製眠舊邸(K4-1932); 「御製今於舊邸予穰千萬(K4-1473); 「御製舊邸甲年臨見懷萬(K4-1198); 「御製舊邸書示沖子(K4-1202); 「御製舊邸予懷萬信(K4-1203); 「御製舊邸唱榜記懷(K4-1206); 「御製見舊邸懷千萬(K4-1021); 「御製今於暮年舊邸伸枕(K4-1374); 「舊邸庭中廣韻錄(K4-68); 「御製舊邸門前廣諭諸宗(K4-1201); 「御製憶舊邸心一倍(K4-3154); 「御製再昨宿舊邸今日宿舊宮(K4-4272); 「御製舊邸興懷(K4-1207); 「御製舊邸記懷(K4-1200); 「御製舊邸記懷(K4-1199); 「御製舊邸翁主人翁問答(K4-1204); 「御製舊邸自相問答(K4-1205); 「御製憶舊邸(K4-3147~3151); 「御製兩宿舊邸(K4-3091); 「御製嗚呼舊邸今日(K4-3754, 3755); 「吁嗟望八瞻拜舊邸記懷(K4-5658) 등과 같이 많은 작품이 있다

67) “是誰第 昔寅平 壬辰年 就此邸” 「御製咸一齋(K4-5317).

형이 생각나네 옛집에 왔던 일이	憶先兄 來舊邸
언제인가 계유년이네	干支何 卽癸酉
달은 언젠가 시월이요	問其月 是十月
날은 언젠가 6일이었네	其日何 初六日
지금 간지와 같으니	今干支 依然同
이런 생각에 회포 어찌 누르리	興惟此 懷何抑
수레 준비시켜 창의궁에 와서	卽命駕 臨彰義
영모당에서 먼저 왔음 알렸고	永慕階 先告來
효장에게 술 올리고 며느리에게도	酌孝章 兼孝婦
아아! 의소에게 역시잔을 올리네	嗟懿昭 亦奠酌
아들 보고 며느리 보고	見我子 見我婦
손자 보니 어찌 남은 유감 있으리	見我孫 豈餘憾
옛집에 와서 내 기쁨것으로 보나	來舊邸 見予喜
저들 기쁨이 내게 무슨 보탬되리	渠雖欣 何益予
계유년에 나서 함께 식사하니	癸酉生 將同食
어찌 글을 갖추었나 충정으로네	豈文具 寔由衷
81세는 정말 뜻밖이니	八十一 誠料表
옛 생각하면 어찌 회포 누르리	憶昔年 懷何抑
문기를 세상람 누구와 짝할만하리	問世人 誰與儔
강개함을 다해 20구를 짓네	慷慨巨 廿句成 ⁶⁸⁾

이 시의 권말에는 “甲午年涼月癸酉日”로 되어 있어 영조가 81 세이던 1774 년 7 월 22일에 지었음을 알 수 있다. 계유일을 맞은 영조는 선형이 사저를 찾아왔던 당시도 1714년 계유일(10월 6일)이었음을 추억하고,⁶⁹⁾ 먼저 육상궁에 들러 생모인 숙빈 최씨를 생각하고 이어서 창의궁에 들러 아들 내외, 손자 등에게 헌작(獻酌)을 하며 가족들을 추억한다.⁷⁰⁾ 영조는 선왕인 숙종, 세손인 정조와 함께 치제

68) 「御製成一懷千萬」(K4-5320).

69) “嗚呼暮年, 舊闕瞻拜. 回臨舊邸, 是日壬辰. 昔年十九, 嗚呼就邸. 曾於其時, 奉先妣來. 今日雖臨, 只見二廟”(「今日予懷萬倍」, 『御製續集慶堂編輯』 권5, 2a~b. 『영조·장조문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94 쪽.

70) “噫, 望八親享毓祥宮, 誠是千千萬萬料表. 回駕之時, 入見舊邸. 追憶壬辰. 槍懷一倍. 日閑齋鋪席門塗, 卽是古物, 豈意今年復見于此. 西有二廟, 一則孝章孝純廟, 一則懿昭廟. 嗚呼, 我子我婦我孫, 今

문(致祭文)을 많이 지은 왕으로도 유명한데 71) 이는 영조의 개인적 자질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남달리 신분이 낮았던 생모 숙빈 최씨의 존재와 자신 보다 먼저 간 자손에 대한 추모의 결과였다. 영조에게 창의궁 함일재는 이미 죽은 자손을 총체적으로 추억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며, ‘구자(舊邸)’라는 명명에 자손에 대한 추모의 뜻이 담기게 된 것이다.

V. 평범한 궁궐 명칭의 일상성

궁궐은 국가의 존폐를 가늠하는 공간으로 여겨졌기에 궁궐의 이름은 보다 공적인 의미를 지니게 하였던 듯하다. 그러기에 정도전, 세조, 인조, 숙종 등의 명명 양상을 보면, 나라의 복록 기원, 제왕의 경계심 제고, 제왕의 권위 상징, 승경에서의 흥취 등 공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의미를 담아왔다. 이는 처음으로 조선 궁궐명을 지은 정도전의 영향이기도 할텐데 정도전은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勤政殿)의 명명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천하의 일은 부지런히 하면 다스려지고,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폐해지게 되는 것이 필연의 이치입니다. 작은 일도 그러한데, 하물며 크나큰 정사이겠습니까? 『서경』에, ‘걱정이 없을 때에 경계하여 법도를 잃지 말라’ 하였고, 또 ‘안일과 욕심으로 제후들을 가르치지 마시어 삼가고 두려워하소서. 하루 이틀 사이에도 기미가 만 가지나 됩니다. 모든 관직을 폐하지 마소서. 하늘의 할 일을 사람이 대신한 것입니다’ 하였으니, 이것은 순(舜) 임금과 우(禹) 임금이 부지런히 한 바입니다. 또 『서경』에 ‘아침부터 해가 중천에 뜰 때와 해가 기울 때에 이르도록 한가히 밥 먹을 겨를도 없으시어, 만민을 모두 화합하게 하였다’ 하였으니, 이것은 문왕(文王)이 부지런히 한 바이니, 임금이 부지런히 하지 않

侍陟降. 爾父爾舅爾祖, 冥然食息”(「噫字命題二十八篇」, 『御製集慶堂編輯』 권1, 4b. 『영조·장조문집』, 35쪽.

71) 이은영, 「조선후기 어제 제문의 규범성과 서정성: 숙종 영조 정조의 제문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30집(2002), 106쪽. 이 논문에서는 『열성어제』 수록 친제문의 숫자를, 문종 1편, 중종 2편, 인조 2편, 명종 1편, 경종 2편, 숙종 58편, 영조 194편, 정조 431편 등으로 파악하였다.

을 수 없음이 이와 같습니다...72)

‘勤政’이 의미하는 ‘부지런한 정치’는 의미에 있어서는 특별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 풀이를 보면 ‘부지런함’의 뜻이 달라진다. 이는 단순히 농사짓는 농부의 부지런함 같이 일반 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유학에서 이상적인 군주로서 여기는 순임금, 우임금, 문왕 등의 부지런함이며, 이들의 행적이 기록된 경전을 바탕으로 한 ‘부지런함’이다. 이 부지런함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혼자만의 부지런함이 아니라 국가와 백성을 훌륭하게 다스릴 수 있는 차원이 다른 부지런함이다.

이처럼 건물명에 경전과 성현의 글을 인용하여 그 의미를 심화하는 일은 일반 사대부들의 거처에도 적용되던 일반적인 일이었다. 이행(李荇)은 거제도에 유배갔을 때 자신의 거처에 ‘성심정(醒心亭)’이라는 정자를 만들고 다음과 같이 명명 이유를 설명하였다.

샘의 성질은 깊고도 맑아 더불어 다투는 물건이 없으며, 샘의 색은 흰 것을 지키는 맑게 빈 집이다. 샘의 흐름은 끝이 없어 밤낮으로 두루하면서 쌓이지도 쉬지도 않는다. 샘의 맑음은 거울과 같고 평평함은 저울 같고 깊은 웅덩이도 꿰뚫으니 사물들이 그 모양·색깔·성질을 속일 수 없다. 내가 스스로 그러한 것으로 법을 삼으면 스스로 그러한 것은 천성이라 썩어 없을 것이요 내가 스스로 강한 것으로 법받으면 큰 코끼리를 몰고 가듯 맑고도 평화로울 것이고 내가 지킬 것으로 법받으면 지키는 것이 유구할 것이어서 그 마음이 정하여진 것이 취기에서 깎과 같음을 이로써 증명을 삼는다.73)

72) “天下之事 勤則治 不勤則廢 必然之理也 小事尙然 況政事之大者乎? 書曰 ‘儆戒無虞 罔失法度’ 又曰 ‘無教逸欲有邦 兢兢業業 一日二日 萬幾 無曠庶官 天工人其代之 舜禹之所以勤也 又曰 ‘自朝至于日中昃 不遑暇食 用咸和萬民 文王之所以勤也 人君之不可不勤也 如此 然安養既久 則驕逸易生 又有諂諛之人從而道之曰, ‘不可以天下國家之故 疲吾精而損吾壽也.’ 又曰 ‘既居崇高之位 何獨猥自卑屈而勞苦爲哉?’”(정도전, 「勤政殿·勤政門」, 『三峰集』 권4, 『한국문집총간』5 권 민족문화추진회, 1990, 350쪽).

73) “泉之性 淵而淨 物無與競 泉之色 守其白 虛明之宅 泉之流悠悠 日夜以周 不畜不休 泉之明如鏡 平如衡 透澈泓滄 物無逃形色性 吾法之爲自然 自然者 天不休 吾法之爲自強 執大象以往 清與平 吾之守 守之以悠久 是心之定 如醉獲醒 以是爲證(李荇, 「名山水說」, 『容齋集』 권6, 『한국문집총간』20 민족문화추진회, 1988, 453 쪽).

이 글은 썸의 성질을 인생의 전범으로 삼으려는 저자의 의도를 담고 있는데 이처럼 자연을 수양공간으로 삼고 자연물에서 삶의 전범을 찾으려는 자세는 조선조 성리학자 특히 조선 중기 이후 사대부의 주류를 이루던 사림파에게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자세가 ‘醒心’ 즉 ‘마음을 깨운다’는 철학적 명명으로 이어진 썸이다.

그러나 영조의 명명 방식은 이들과 달랐다. 창덕궁의 보경당을 어머니가 자신을 낳은 곳이라고 하여 ‘탄생당’이라는 편액을 달게 하였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경선당’에는 부모가 자기를 돌보던 때가 생각난다고 하여 ‘추모당’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자신이 집무하던 집경당은 ‘중용당’, ‘정와당’이라고 명명하여 집경당에서의 생활 양상을 표현하였다.

유배간 사대부도 일시적으로 머무는 거처의 이름을 심오한 의미를 담아 짓고 있는데, 영조는 궁궐이라는 국가 대표 공간에 영조 개인의 일상적 정황을 반영한 썸이다. 이러한 양상의 발단은 본래 ‘예연당’이었던 집경당을 왕실의 경사가 많던 곳이라고 하여 ‘집경당’으로 개명한 숙종으로부터였다고 할 수 있으나 개인의 구체적 경험과 일상성을 우선시하던 시대적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⁷⁴⁾

영조는 바로 그 집경당에서 30여년간 주로 거처하면서 개인적 추억과 추모의 마음을 궁궐명에 반영하고 이렇게 명명한 이름을 편액으로 걸게 하여 일반화하게 하였다. 이처럼 누구나 볼 수 있고 오랜 기간 건물의 표상이 될 수 있는 편액을 통해 후손에게 자신의 개인적 감회를 남기려 한 태도는 영조가 ‘일상성’을 중시하고 궁궐을 ‘개인적’ 공간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태도는 마을과 고개에 까지 확대되는데 숙종비인 인현왕후(仁顯王后)가 살던 송방(松房)을 ‘추모동’으로 명명하였고,⁷⁵⁾ 도성 서쪽의 ‘사현(沙峴 지금의 무악재)’을 명릉을 바라보며 선왕을 추모한다고 하여 ‘추모현’으로 명명하였다.⁷⁶⁾ 조선후기는 개인의 구체적 경험과 일상성을 우선시한 시대로 평가하거니와 영조의 궁궐인식은 이러한 시대사조가 왕이라고 하여 예외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74) 박무영, 「일상성의 대두와 새로운 사유방식」, 『우리 한문학사의 새로운 조명』(집문당, 1999), 331~352 쪽

75) 『영조실록』권106, 영조41년 8월 6일 己酉 “上駕幸追慕洞 奉審碑閣 歷臨餘慶坊私第 洞卽仁顯王后誕降舊基 坊乃淑嬪崔氏降生舊第也”

76) 『영조실록』권113, 영조45년 9월 4일 癸未 “上幸慕華館 試射三廳勸武軍官 王世孫隨駕 仍詣沙峴 望見明陵役處 頒御製二句詩 諸臣廣進 更名沙峴爲追慕峴”

VI. 결론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사회의 중심공간이었던 궁궐의 수많은 건물들에 대한 흥 폐사적을 복원하는 일만큼 궁궐에 대한 인식을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시대별로 태조대, 세조대, 숙종대, 영조대의 궁궐 명명 양상을 통해 인식의 차이를 밝히고, 특히 영조어제를 천착하여 영조의 궁궐명명과 그에 따른 독자적 인식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궁궐의 명칭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기능, 건물의 융성 기원, 유가적 덕목, 제왕의 권위 상징, 승경의 향유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명명과 개명을 통해 왕조별로 약간의 차이를 찾을 수 있었다. 정도전이 일꾼으로서 군주의 자세를 드러내려 한 반면 세조는 정치 주체로서 베푸는 군주의 입장을 나타냈으며, 인조가 승경에의 향유를 제시한 반면 숙종은 승경 속에서도 위민정신을 잃지 않으려는 명명을 보였다. 이런 차이를 보이지만 이들이 모두 궁궐이라는 고급 공간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당위적인 명명을 했다면 영조는 개인으로서 일상적이고 감정적인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제왕으로서 가족들 대부분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유달리 오랜 만년, 정침이 아닌 집경당에서의 30년간 생활, 독특한 문체의 창조 등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영조가 명명한 각 건물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희궁의 융복전이 정침이고 또 숙종이 융복전에서 승하한 것을 볼 때는 융복전이 숙종의 대표 공간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영조어제를 보면 영조는 회상전을 선왕의 상징물로 여기고 있었는데 필자는 영조가 7년간 역석와라 이름 붙인 사 알방에서 회상전에 거처하는 선왕을 시탕했기 때문에 이를 선왕의 대표적 건물로 인식하게 된 것이라 추정하였다. 둘째, 보경당은 영조가 탄생한 당이며 본인이 ‘탄생당’이라 명명했으므로 자신의 탄생을 자궁한 명명으로 보이는데 영조어제를 보면 보경당은 생모인 숙빈 최씨에 대한 추억이 담긴 곳이며, 또한 숙빈 최씨의 주요 거처이므로 ‘탄생당’이란 명명이 왕을 탄생시키는 의미있는 일을 한 생모에 대한 예우로 봐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경선당은 경종이 어렸을 때부터 주로 왕자의 거처로 사용되었으므로 동궁의 거처라 할 수 있지만 영조는 이곳을 ‘추모당’이라 명명했으며, 영조어제에서는 부모에게 귀여움을 받고 또 문안을 드린 장소로서 부모를 추모하는 장소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넷째, 집경당은 만년의 영조가 주로 생

활하고 집무를 보던 공간으로 특히 명칭에 있어서 본래 예연당이던 이름을 숙종이 왕실의 경사가 많다 하여 집경당으로 개명하였고 영조는 이곳에서 만년을 조용하고 편안하게 보낸다하여 중용당, 정와당 등으로 명명하였다. 다섯째, 함일재는 창의궁의 한 건물로 그저 영조의 잠저시 생활공간으로 보이지만 영조어체를 보면 ‘구자 라는 명칭이 자주 거론되는데 대개 자식과 손자까지 추모하는 가족 추모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이곳에 단명한 아들 내외와 손자의 묘까지 마련하여 자주 찾아가 추모한 장소이다.

이외에도 영조는 ‘추모동’, ‘추모현’ 등 궁궐과 주변 경물 중에 본인과 관계된 곳을 명명하여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특성을 일반성으로 확대하려고 하였다. 이는 궁궐을 왕으로서의 책임 공간으로 여기거나 개인적 건물을 사대부의 자성공간으로 삼아 명명하던 방식과는 아주 달라진 양상이다. 이로 볼 때 조선후기의 구체적 실상과 일상성을 증시하던 풍조는 왕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英祖御製帖目録」(K2-4969); 「英祖御製帖目録」(K2-4969); 「御製今八旬憶昔年」(K4-1489); 「御製曷勝慨」(K4-0487); 「御製會祥西」(K4-5395); 「御製會祥殿」(K4-5396~5404); 「御製會祥殿長樂殿」(K4-5405); 「御製今八旬誠冥然」(K4-1488); 「御製憶昔窩問答」(K4-3394); 「御製憶昔窩」(K4-3389); 「御製憶昔窩」(K4-3390); 「御製憶昔窩」(K4-3391); 「御製憶昔窩記懷」(K4-3392); 「御製憶昔窩問答」(K4-3393); 「御製憶昔窩問答」(K4-3394); 「御製憶昔窩問答」(K4-3395); 「御製憶昔窩若昔年」(K4-3396); 「御製憶昔窩憶古」(K4-3397); 「御製憶昔窩憶昔」(K4-3398); 「御製憶昔窩憶昔」(K4-3399); 「御製憶昔窩憶昔」(K4-3400); 「御製憶昔窩自歎」(K4-3401); 「御製憶昔窩興懷」(K4-3402); 「御製寶慶堂紀懷」(K4-2414); 「英廟御筆親製祭文草」(K4-3039); 「御製慶善堂」(K4-1066~1068); 「御製慶善堂 西門前 記懷」(K4-1069); 「御製靜臥堂」(K4-4315, K4-4316, K4-4315); 「御製靜臥堂自悶晝夜長」(K4-4318); 「御製從容堂」(K4-4372~4382); 「御製從容堂心憧憧」(K4-4383); 「御製舊闕舊邸慕萬懷」(K4-1191); 「御製眠舊邸」(K4-1932); 「御製今於舊邸予穰千萬」(K4-1473); 「御製舊邸甲年臨見懷萬」(K4-1198); 「御製舊邸書示沖子」(K4-1202); 「御製舊邸予懷萬信」(K4-1203); 「御製舊邸唱榜記懷」(K4-1206); 「御製見舊邸穰千萬」(K4-1021); 「御製今於暮年舊邸伸枕」(K4-1374); 「舊邸庭中廣韻錄」(K4-68); 「御製舊邸門前廣諭諸宗」(K4-1201); 「御製憶舊邸心一倍」(K4-3154);

「御製再昨宿舊邸今日宿舊窩」(K4-4272); 「御製舊邸興懷」(K4-1207); 「御製舊邸記懷」(K4-1200); 「御製舊邸記懷」(K4-1199); 「御製舊邸翁主人翁問答」(K4-1204); 「御製舊邸自相問答」(K4-1205); 「御製憶舊邸」(K4-3147~3151); 「御製兩宿舊邸」(K4-3091); 「御製嗚呼舊邸今日」(K4-3754, 3755); 「吁嗟望八瞻拜舊邸記懷」(K4-5658); 「御製咸一齋」(K4-5317); 「御製咸一懷千萬」(K4-5320)(이상은 장서각 소장 영조어제첩 자료).

『承政院日記』; 『太祖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世祖實錄』; 『仁祖實錄』; 『肅宗實錄』; 『英祖實錄』(이상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www.history.go.kr 참조).

『列星御製』1.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英祖·莊祖文集』.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英祖文集補遺』.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宮闕志』(근3950). 영인본 제2판 『宮闕志』. 서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0.

『文苑黼黻』(K4-100); 『文苑黼黻續編』(K4-101).

『國譯 國朝寶鑑』.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5.

『영조대왕 글·글씨』. 서울: 궁중유물전시관, 2001.

鄭道傳, 『三峰集』. 『표점 영인 한국문집총간』5.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0.

李荇, 『容齋集』. 『표점 영인 한국문집총간』20.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8.

蔡裕後, 『湖洲先生集』. 『표점 영인 한국문집총간』101.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3.

洪奭周, 『淵泉集』. 『표점 영인 한국문집총간』293.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2.

김영모·최기수, 「조선시대 궁궐공간의 개념적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25 권 4 호, 한국조경학회, 1998. 141~157 쪽

이은영, 「조선후기 어제 제문의 규범성과 서정성: 숙종 영조 정조의 제문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 연구』 30, 2002. 103~143 쪽

이종목, 「장서각 소장 『열성어제』와 국왕문집의 편찬과정」. 『장서각』 창간호, 1999, 21~52 쪽

이혜순·박무영, 『우리 한문학사의 새로운 조명』. 서울: 집문당, 199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의 역사와 자료적 특성』.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홍순민, 「조선왕조 궁궐 경영과 양궐체제의 변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6.

국문 요약

본고에서는 영조 이전 시기 위정자들이 궁궐명명의 기준을 국가의 공적 공간임을 표상하여 ‘국가의 응성’, ‘유가 덕목’, ‘승경의 향유’, ‘건물의 기능’ 등에 두었으나 영조는 궁궐의 일부 건물을 사적 공간으로 인식하여 개인적 추억과 추모를 궁궐 명명의 기준으로 두었음을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명명의 배경으로 영조 만년 생활의 특징인 정침이 아닌 집경당에서의 30년 생활 어제의 다작(多作)과 독특한 문체 창조 등을 들었다.

영조가 경희궁의 정침(正寢)인 융복전(隆福殿) 보다 회상전(會祥殿)을 숙종(肅宗)의 상징물로 여긴 이유는 영조가 7년간 ‘억석와(憶昔窩)’라 이름 붙인 사알방(司謁房)에서 회상전의 선왕을 시탕(侍湯)했기 때문이며 보경당(寶慶堂)을 ‘탄생당(誕生堂)’이라 명명한 이유는 생모에 대한 예우로 붙인 것으로 보였다. 경선당(慶善堂)은 왕자의 거처였는데 영조는 부모에게 귀여움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에 대한 ‘추모당(追慕堂)’이라 명명하였다. 집경당(集慶堂)은 영조 만년의 생활 공간으로 본래 예연당(藥淵堂)이던 이름을 숙종이 집경당으로 개명하였고 영조는 중용당(從容堂), 정와당(靜臥堂) 등의 별명을 붙였다. 함일재(咸一齋)는 창의궁(彰義宮)의 한 건물로 영조는 이 ‘구저(舊邸)’를 자식과 손자까지 추모하는 가족 추모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이외에도 영조는 궁궐 주변 경물 중 본인과 관계된 곳을 ‘추모동(追慕洞),’ ‘추모현(追慕峴)’ 등으로 명명하여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특성을 일반성으로 확대하려고 하였다. 이는 궁궐을 왕으로서의 위정 공간으로 여기거나 개인적 건물을 사대부의 자성공간으로 삼아 명명하던 방식과는 아주 달라진 양상이다. 이로 볼 때 조선후기의 구체적 실상과 일상성을 중시하던 풍조는 왕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알게 한다.

● 투고일 : 2006. 7. 13.

● 심사완료일 : 2006. 8. 29.

● 주제어(keyword) : 영조(King Yougio), 문학(literature), 궁궐(palace),
일상성(routines), 왕실문학(royal literature), 숙종(King Sukjong),
세조(King Saejo), 정도전(Jeong do jeon)